

대장경 나르며 부처님 은혜 되새겨

〈이운 : 移運〉



사진 제공=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강화 선원사-서울 지천사-합천 해인사로

합천 해인사에 봉안돼 있는 팔만대장경. 고려 고종 23년(1236) 당시 천도지(遷都地)인 강화도에 대장도감(大藏都監) 본사(本司)를, 진주와 남해에 대장도감 분사(分司)를 두어 16년 간 만든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 지어진 판당에 봉안됐다. 다시 강화 선원사(禪源寺)에 옮겨졌다. 그 뒤 조선 태조 7년(1398) 서울 지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합천 해인사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다.

팔만대장경이 강화에서 합천 해인사까지 가게 된 까닭은 3재(災) 8난(難) 3위(危)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3재는 수재, 화재, 풍재 또는 병란, 역란, 기근난을 말하며, 8난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이며, 3위는 전쟁, 짐승, 전염병이다.

대장경이 이운된 이유는 고려 말엽과 조선 초엽에 왜구의 노략질로 강화도가 안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이 신령스러운 명산인 데에다 사람이 오가기가 힘든 심산유곡이어서 대장경을 봉안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장경 이운 행렬은 국가 차원에서 봉행됐다. 길을 맡게 하기 위한 향로를 든 동자를 앞세운 스님들이 독경을 하며 길을 인도했다. 그 뒤를 따라 포장된 경관을 많은 사람이 머리에 이고 걸으면서 정성스럽게 운반했다. 조선 태조 7년(1398) 5월부터 시작된 대장경 이운 행렬은 이듬해인 정종 원년(1399)

정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을 맺을 정도로 대장정이었다. 사람들은 이운의식을 통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다.

이러한 경관 이운의식을 오늘날 각 사찰에서는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

합천 해인사는 2010년 5월 28일에는 6월 1~6일 열렸던 '2010 국제기록문화전람회' 전시를 위해 대장경 진품을 이운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팔만대장경은 <선행법상경(禪行法相經)> 원본 경판 1권과 <반야바라밀다심경> 동판 1권, <반야심경> 인경본 1권 등 모두 3점이다. 팔만대장경이 장경관전을 나선 것은 1993년 이후 17년 만으로 정식 의식을 통해 이운된 것은 건국 이래 최초다.

해인사는 대장경 축전 개·폐막식과 함께 강화도와 서울, 그리고 해인사를 잇는 대장경 이운의 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해인사는 매년 음력 3월 경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통해 이를 기리고 있다.

이 밖에도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와 동국대 역경원도 2007년 6월 23일 선원사, 지천사, 충주, 해인사를 거치는 5개월 간의 대장경 이운대법회를 개최하는 등 기념사업에 나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ac@naver.com

이운의식은?

이운의식은 일정한 장소에 안치된 과불이나 가사, 사리 등을 의식집행을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행하는 의식이다. 그 종류로는 과불이운, 불사리이운, 승사리이운, 금은전어운, 경함(經函)이운, 법신이운, 시주(施主)이운 등이 있다.

과불이운(掛佛移運)은 재 등을 위해 과불을 내어 걸 때 행하는 의식이다. 팔부신중을 모셔 도량을 옹호하는 옹호계(擁護僞)를 시작으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찬불계(讚佛僞), 출산계(出山僞)를 한다. 염화계(焰花僞)를 한 뒤 꽃을 뿌리고 '나무연산회상불보살'을 3회 염한다. 등상계(登床僞), 사무량계(四無量僞), 영산지심(靈山至心)으로 귀의정례하고 헌좌계(獻座僞)로 좌를 마련하고, 차를 올리는 다계를 한다. 이어 수설대회소(修設大會疏)를 읽고 과불을 하게 된다.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불사리 이운은 옹호계로 시방의 모든 현성과 변천왕, 도량의 팔부신중을 청해 옹호계 하고, 사리계를 하여 부처님 사리를 찬탄하고, 염화계를 하고 꽃을 뿌리며 부도에 이른다.

“2000명사 동원하던 위상 살리겠다”

인천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작법무 전승자 능화 스님

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상이며 끊어질 수 없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다.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힘은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였기에 우리는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게 됐다.

이운의식 또한 이런 문화전승을 통한 정체성 보존에 나서는 이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보유자인 인천 구양사 주지 능화 스님(사진)은 대장경 이운의식을 범패와 작법무로 표현하는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작법무'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봉행된 범패와 작법무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계승한 것이다. 작법무는 부처님의 정법을 찬탄하는 무용으로 힘차고 선이 굵은 것이 특징이다.

“범패와 작법무는 고대로부터 전해져왔지만, 현재의 동작은 조선 태조 때 강화도에 있던 팔만대장경을 해인사로 옮길 때 치러졌던 의식에서 유래합니다.”

능화 스님은 “대장경 이운의식은 팔만대장경을 지천사로 옮길 때 오교양종의 대덕 스님들이 모여 이운의식을 봉행하면서 유래한다”며 “이 때가 인천에서 범패가 처음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능화 스님은 육전범패대학 교수로 동국대 대학원과 동방대학원대학에서도 범패를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1988년 태국 국왕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미국 뉴욕 카네기홀 등지에서 20여 차례 해외공연을 펼치는 등 세계 속에 한국의 문화와 불교를 알리고 있다. 스님은 2007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공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매년 2월 병인양요 희생자를 기리는 '수륙전쟁 고혼 천도



제' 등 인천 지역 각종 축제에서도 공연자로 나서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김포 대곶중학교, 문학정보고 등 인천지역 중·고교에서 전수반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범패무용을 전수 중이다.

능화 스님은 “개신교 교세가 강한 인천 지역에서 지역문화로 성장 가능한 불교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이운의식을 공연으로 구성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능화 스님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운법회에 동원된 병사가 2000명에 이르렀다. 대규모 행사임에도 지역민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능화 스님은 “범패와 작법무를 불교 공연을 넘어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가 진행하는 강화별곡의 한 장면.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중 정 청 봉 석정산 대종사 (중정사서: 석해오, 석해주, 석능현, 박선해화)

원로 회 회장	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무공 대종사, 만월 대종사
승 정 원 장	원정 대종사	총무원장대행	석해오
호 계 원 장	무공 대종사	기 획 원 장	현암법상종사
감 찰 원 장	법일 대종사	감 찰 국 장	석법진
사 정 원 장	법안 대종사	문 화 원 장	지명 대종사
중앙교육원장	무겸 대종사	교 육 부 장	석대명
범패교육원장·범패부위원장	석월오, 석운오	작법교육원장	조영선(무혜심)
부산1총무원	석정은	거 제 총무원	석덕운
창원총무원	석범일	진 주 총무원	석덕오
재 무 부 장	석도현	교 무 부 장	석성오
의 전 부 장	석근홍	행 사 부 장	석명오
비 구 니 원 장	석정명	부 원 장	석광명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 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신행)
		작법교육원장	조영선(무혜심)
		거 제 총무원	석덕운
		진 북 총무원	석철산
		교 육 부 장	석대명
		교 육 부 장	석대명
		포 교 부 장	석해주
		포 교 부 장	석해인
		문 화 부 장	석도산
		문 화 부 장	석도산
		대 구 총무원	석정명
		마 산 총무원	석법경(法敬)
		문 화 부 장	석도산
		문 화 부 장	석도산
		비 구 니 회 장	석효각
		비 구 니 회 장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해문 석범오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 앙 정 책 위 원 장	박만석
		중 앙 정 책 위 원 장	박만석
		중 앙 문 화 위 원 장	박무근

◆입증안내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중도님을 모십니다.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증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